

북한의 대중 수출구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이종규*

- I. 머리말
- II. 북한의 대중수출 추세
- III. 품목별 대중 수출구조 분석
- IV. 맺음말

요약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대중무역 확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하나의 국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무역구조는 공통적으로 외부충격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북한경제의 경우 기본구조 자체가 식량, 원유, 생필품 등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이를 충당하는 외화확보를 위해 주로 중국에 지하자원을 수출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2014년에 이어 2015년 들어서는 북중무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북한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무연탄, 철광석, 의류제품 등 3대 품목을 중심으로 최근의 변화 추이, 중국 내 수요,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알아봤다. 이들은 북한의 대중수출에서 약 73%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므로 이들의 변화는 곧 중요한 외화확보 채널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향후 북한의 대중수출은 더 이상 확대될 여력이 거의 없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주력 수출품목인 지하자원의 국제시세가 당분간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의류제품의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는 데다 이를 늘린다고 하여도 외화가득률은 지하자원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3대 수출품목 외에 다른 대안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재 이들 외의 주력 수출품목으로 수산물, 철강 등이 존재하나, 워낙 수출양도 적고 이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중국 이외의 다른 수출 상대국을 찾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예를 들면, 러시아는 한국을 제외한 북한의 2번째 교역 상대국인데, 총 교역규모가 1억달러 내외를 기록하고

* KDI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있다. 물론 양국이 2020년까지 교역규모를 10억달러까지 확대시키기로 했으나, 현재 북중 무역 규모가 60억달러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것도 매우 적은 수치이다. 따라서 무역을 통한 외화확보에는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당국도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중수출 감소세가 경제위기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북한당국의 무역구조 변화에 대한 유인이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맞는 판단일 것이다. 과거 북한은 무역환경이 변화하는 시점마다 무역구조를 바꾸어가며 대응해 온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북한은 대외무역구조의 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외화확보 채널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북한이 표방하는 무역 다각화도 이러한 시도의 일환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북한당국에 이러한 유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북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 머리말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확대되어 왔다. 특히 일본의 경제제재(2006년), UN의 안보리 결의(2006년, 2009년, 2012년, 2013년), 한국의 5.24 조치(2010년) 등과 같은 연속된 경제제재 이후 북한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갖는 의미는 절대적으로 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KOTRA 발표에 의하면 2014년 중국은 북한 대외무역의 90.2%(한국과의 교역 제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UN과 IMF의 통계에서도 각각 88.1%, 66.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¹⁾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한 문헌 모두에서는 북한의 경제성장(또는 극심한 침체를 방지해주는 역할)에 있어 대중 무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예를 들면, 김병연(2011)은 1990~2009년 동안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북한의 대중 수출이 장기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상만·황진훈(2009)도 1970~

1) KOTRA의 북한 대외무역동향, UN의 Comtrade, IMF의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는 북한의 대외 무역 통계를 집계할 때 주로 거울통계(mirror statistics)를 사용하는데, 이들 데이터를 종합하여 비교한 논문은 김석진(2007), 고일동 외(2008), 이석 편(2013), 이종규(2014) 등을 참고하라.

2007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북한의 대외부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결론을 내렸다.²⁾ 김석진(2013)은 중국 측의 수요증가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북한의 대중수출을 확대시킴으로써 생산 및 외화수입 증가로 이어졌으며, 수입을 통해 산업용 물자공급이 이루어짐으로써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성채기(2009)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통한 무역 상대의 공백을 중국이 완벽하게 대체해줌으로써 외형적 실적에서 제재가 영향을 미치는 데 실패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정형곤·방호경(2009, p.43~44)은 2006년 국제사회의 제재는 북한의 대외 수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³⁾ 북한의 문헌도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영옥(2013, p.34)은 “수입무역은 외화를 소비하여 필요한 물건을 사들이는 과정이며, 수출무역은 수입무역의 발전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과정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강경희(2012, p.55)는 “수입과 수출 바란스를 잘 맞추어야 우리에게 필요한 물자들을 제때에 들여다 쓰면서도 다른 나라에 빚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즉, 필요한 물자를 충분히 수입하기 위해 수출을 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북한경제의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 중심에는 대중 수출이 자리한다.

이와 같이 그동안 북한의 대외무역 확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하나의 국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무역구조는 공통적으로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북한경제의 경우 기본구조 자체가 식량, 원유, 생필품 등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이를 충당하는 외화확보를 위해 주로 중국에 지하자원을 수출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2014년에 이어 2015년 들어서는 북중무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최근 몇 년간 유지되었던 북한경제의 기본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의 제2장에서는 최근 북중무역 추세를 수출과 수입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그동안의 추이와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볼 것이며,

2) 물론 이 연구의 약점으로는 피설명변수를 실질 국민소득이 아닌 명목 국민소득 추정치로 선택한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

3) 이석·이재호(2012)의 경우 한국의 5.24 조치는 북한 전략물자의 무리한 대중수출로 이어져 북한 경제 구조에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3대 수출품목인 무연탄, 철광석, 의류제품을 중심으로 변화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중국 수입시장 구조와 각 지역 별 비중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향후 변화의 방향성을 예측해볼 것이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북한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북한의 대중수출 추세

2000년대 이후 북중무역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전체 북중무역은 2000년 4.8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63.6억달러에 이르렀는데,⁴⁾ 북중무역규모가 15년도 되지 않는 세월 동안 12배 이상으로 증가한 셈이다. 또한 2000~14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북한 기준)은 수출의 경우 51.4%였고, 수입은 17.3%였으며, 전체 북중무역 규모는 21.8%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중국 전체의 대외무역 규모가 연평균 17.8%씩 증가했던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더구나 이 기간 동안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 실험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 제재⁵⁾가 본격적으로 가해지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 나타난 결과였다.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북한의 대중수출을 통한 외화 확보는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따로 살펴볼 가치가 있다. 또한 대중수입보다는 수출이 전반적인 북중무역 확대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2000년대 북중 무역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 시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2001~04년까지 북한은 주로 수산물(굴, 조개, 바지락 등)을 중국에 수출한다. 이는 전체 수출의 44.7%(HS 코드 2단위 기준, 연평균)에 해당하는데, 이때만 해도 중국이 북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과 같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2005~08년까지 북한은 주력 수출품목을 변경하여 석탄과 철광석을 집중적

4) KOTRA의 경우 2014년 북중무역을 68.6억달러로 추산했으나, 이는 중국해관통계에 원유 수입이 잡히지 않았던 사실을 반영하여 원유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가정하고 집계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5) UN 안보리 결의 제1695호(2006년 대포동 2호 발사 이후), UN 안보리 결의 제1718호(2006년 제1차 핵 실험 이후), UN 안보리 결의 제1874호(2009년 제2차 핵실험 이후), UN 안보리 결의 제2087호(2012년 광명성 3호 발사 이후), UN 안보리 결의 제2094호(2013년 제3차 핵실험 이후)

으로 수출하게 된다. 이때 두 지하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5%, 17%(연평균)에 이르게 되며,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으로도 자리매김한다. 특히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석탄과 철광석은 북한 수출 1,2위 품목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다(HS 코드 4단위 기준). 끝으로 2009~14년 동안에는 석탄 수출이 대폭 늘어나면서 북한의 대중 수출 확대에 기여를 한다. 특히 한국의 5.24 조치가 내려진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북중무역이 갑자기 2배 이상 증가하는데, 그 중에서 석탄의 기여율은 58.9%이나 된다.⁶⁾ 이후 대중수출은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2014년과 2015년의 흐름을 보면 북한의 대중수출 구조에 약간의 변화가 감지된다. 먼저 2014년 북한의 대중수출이 감소했는데(-2.4%), 2015년(10월 누적액)에는 이와 같은 경향이 더욱 심화된 것이다(-12.6%). 이는 그동안 북중무역의 확대를 이끌던 지하자원 수출이 급감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5년(10월 누적액) 북한 석탄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3% 감소했으며, 철광석 수출은 6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의 수출 감소에서 두 지하자원이 기여한 비율은 62.9%나 된다. 더구나 2015년 들어서면서 의류제품의 수출 증가세마저 둔화(1.4%)되면서 급격한 감소세를 상쇄하지 못한다.

〈표 1〉 중국 지역별 북한산 무연탄 수입 현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HS 코드	품목명	2014년 전체		2015년(1~10월)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	2701	석 탄	1,136	-17.7	901	-5.3
2	2601	철 광 석	222	-25.7	63	-69.0
3	6201	남성코트	157	24.2	148	0.4
4	6203	여성재킷	153	25.1	122	-7.3
5	6202	여성코트	137	66.5	107	-15.6
북한의 전체 대중수출 총계			2,841	-2.4	2,088	-12.6

주: 2014년 순위를 기준으로 표 작성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

6) 북한의 대중수출은 2010년 11.9억달러였으나, 2011년에는 24.6억달러에 이르게 된다. 그 중에서 석탄 수출은 2010년 3.9억달러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11.4억달러에 이르면서 전체 대중 수출 확대를 견인한다.

III

품목별 대중 수출구조 분석

이번 장에서는 북한의 주요 대중수출 구조를 품목 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수출 3대 품목에 속하는 석탄(HS2701), 철광석(HS2601), 의류(HS61과 62) 순으로 분석을 할 것이다. 또한 주요 분석 시점은 북한의 수출구조가 일본 중심에서 중국 중심으로 변화하는 2000년대 중반에서 최근까지이다. 중국의 수입 시장 내에서 경쟁국은 어떠한 국가가 있고, 최근 추이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각 품목들은 어떠한 지역으로 수출되는지 확인함으로써 중국의 국내 수요가 북한 수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유추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2015년 북한의 수출 구조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향후 북한의 대중 수출구조 변화의 방향성을 예측해 볼 것이다.

1. 석탄(HS270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석탄은 2005년부터 수출품목 1위를 놓쳐본 적이 없는 북한의 대표적인 수출상품이다. 이 중에서 무연탄(2014년 기준)이 99.7%를 차지하기 때문에 석탄 수출은 곧 무연탄 수출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북한의 2014년 무연탄 대중 수출은 물량 기준 1,543만톤, 금액 기준 11.3억달러인데, 이는 북한 대중 수출의 39.8%, 전체 수출의 35.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재 석탄은 중국 에너지 소비의 약 70.5%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쓰이는 곳은 전력생산(56%), 철강생산(15%), 시멘트생산(13%), 화학제품(5%) 등으로 알려져 있다(2010년 기준).⁷⁾ Cattaneo et al.(2011) 역시 석탄 수요는 전력, 금속, 화학, 건설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의 EIA⁸⁾에 따르면 중국은 약 36억 5,100만 톤의 석탄을 생산(2012년 기준)하는 세계 최대의 석탄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석탄의 수입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석탄을

7) 배상인·안성희, ‘중국의 석탄수입 급증 배경과 시사점’, 국제경제정보, 한국은행, 2012-22호.

8)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www.eia.gov.

수출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국가로 바뀌었으며, 무연탄의 경우 저렴한 베트남 및 북한산 무연탄에 대한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미 2005년부터 수입국으로 전환되어 있었다(Lee 2015).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중국 내수 확대, 국내 석탄 생산 감소, 가격경쟁력 약화, 운송비용 절감 등을 꼽을 수 있다.⁹⁾

중국 내 무연탄 수입 시장의 경우 베트남이 주도를 해왔으나,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한 결과, 2013년부터 북한이 가장 많은 양의 무연탄을 중국에 수출하게 되었다. 베트남 정부의 수출 관세 인상, 품질이 떨어지는 석탄에 대한 중국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에는 베트남이 호주나 러시아보다도 적은 양을 수출하면서 베트남은 중국 무연탄 수입시장에서 점점 더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기조는 최근까지도 계속 유지된다.¹⁰⁾ 하지만 전체적으로 무연탄 수입액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무연탄 수출액을 늘렸다고 이해하기보다는 국별로 감소폭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음으로 <표 2>에서는 북한산 무연탄이 가장 많이 수입되는 주요 4개 지역을 중심으로 무연탄 수입액과 수입량을 살펴본다. 이에 따르면 산둥성은 북한으로부터 가장 많은 무연탄을 수입하는 지역으로 금액으로는 대략 5.0억달러, 물량으로는 715만톤을 수입했는데, 이는 북한 전체 무연탄 수출량의 약 4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¹¹⁾ 특히 일조(日照)시의 ‘일조철강’, 임기(臨沂)시의 도자기 및 니켈 제련 업체들, 치박(淄博)시의 도자기 업체들이 산둥성 내에서 주요 수요처로 파악된다(이종규 2015). 다음으로 하북성은 북한으로부터 약 2.3억달러, 물량으로는 321만톤을 수입했는데, 이는 북한 전체 무연탄 수출의 약 20%에 해당된다. 당산(唐山)시와 천진

9) 배상인·안성희(2012, p.4~7)의 경우 “석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국내생산이 감소했고, 고품질 석탄의 수급 불일치가 발생했으며, 국내 석탄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수입이 급증했다.”고 분석한다. 즉, 높아진 국내 수요를 국내 생산이 따라가는 데 실패함으로써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배종렬(2011, p.50~53)은 중국의 석탄 수입 급증의 가장 큰 이유로 고속경제성장의 여파를 지목했으며, 그 중에서도 중국이 특별히 북한산 무연탄에 주목한 이유에 대해 “세계적인 자원 확보 경쟁 속에서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로부터 안정적인 공급을 받는 것이 중요했고 중국 내륙 간 석탄 수송비용¹⁾보다 항구를 이용한 수송비용이 더욱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Tu and Johnson-Reiser(2012) 역시도 중국 석탄의 급증 이유를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수요 증가”, “중국 내륙의 철도 교통의 한계”, “중소 탄광 구조조정” 등을 꼽았다.

10) 중국 무연탄 수입시장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2015년 10월, 금액 기준): 북한(72.1%), 러시아(15.2%), 호주(9.7%), 베트남(2.9%)

11) 산둥성이 차지하는 비중: 44.6%(금액 기준), 46.3%(물량 기준)

〈표 2〉 중국의 무연탄 수입시장 구조

연도	북한으로부터의 무연탄 수입(천톤)	베트남으로부터의 무연탄 수입(천톤)	두 국가로부터의 무연탄 수입(천톤)
2001	86.4 (19.5%)	357.1 (80.5%)	443.6 (100%)
2002	406.5 (14.7%)	2,241.6 (81.0%)	2,768.8 (95.6%)
2003	745.3 (22.0%)	2,492.0 (73.7%)	3,382.8 (95.7%)
2004	1,571.3 (20.1%)	6,116.2 (78.2%)	7,819.3 (98.3%)
2005	2,804.2 (21.9%)	9,926.3 (77.6%)	12,789.6 (99.5%)
2006	2,480.7 (11.0%)	20,078.6 (88.7%)	22,625.9 (99.7%)
2007	3,740.9 (13.2%)	24,611.6 (86.6%)	28,414.2 (99.8%)
2008	2,536.6 (13.1%)	16,843.9 (86.9%)	19,387.9 (100%)
2009	2,972.2 (8.6%)	24,077.9 (70.0%)	34,388.1 (78.7%)
2010	4,603.4 (17.4%)	18,046.6 (68.2%)	26,461.2 (85.6%)
2011	11,047.6 (30.6%)	22,032.8 (61.0%)	36,130.3 (91.6%)
2012	11,807.1 (34.3%)	17,423.1 (50.5%)	34,471.0 (84.8%)
2013	16,494.5 (41.6%)	13,142.0 (33.1%)	39,646.8 (74.8%)
2014	15,432.4 (50.8%)	6,829.9 (22.5%)	22,262.3 (73.3%)

주: 괄호 안은 중국 무연탄 수입시장에서 해당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를 바탕으로 필자 계산

(天津)시의 철강사들이 주요 수요처로 알려졌다(이종규 2015). 그 다음을 차지하는 강소성은 “동부 5성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운송비 부담이 크나, 보산 강철 등 철강산업이 발달해 있어 무연탄 수요가 상존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남북협회 북한자원 보고서 no.3, pp.6). 금액으로는 약 2.0억달러, 물량으로는 254만톤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전체 수출의 약 17%에 해당한다. 그 다음을 차지하는 요녕성은 북한으로부터 1.4억달러, 184만톤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전체 무연탄 수출의 약 12%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종합해 보면, 북한 무연탄은 주요 4개 지역으로만 약 98.2%가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요녕성이나 길림성보다 항구를 통해 수출할 수 있는 산둥성, 하북성, 강소성 등으로 북한 무연탄이 활발하게 나가고

〈표 3〉 중국 지역별 북한산 무연탄 수입 현황 (2014년 기준)

지 역	금액(백만달러)	물량(천톤)
산 동 성	505 (44.6%)	7,149 (46.3%)
하 북 성	232 (20.5%)	3,216 (20.8%)
강 소 성	200 (17.6%)	2,544 (16.5%)
요 녕 성	143 (12.7%)	1,842 (11.9%)

주: 괄호 안은 북한 무연탄 수출에서 해당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를 바탕으로 필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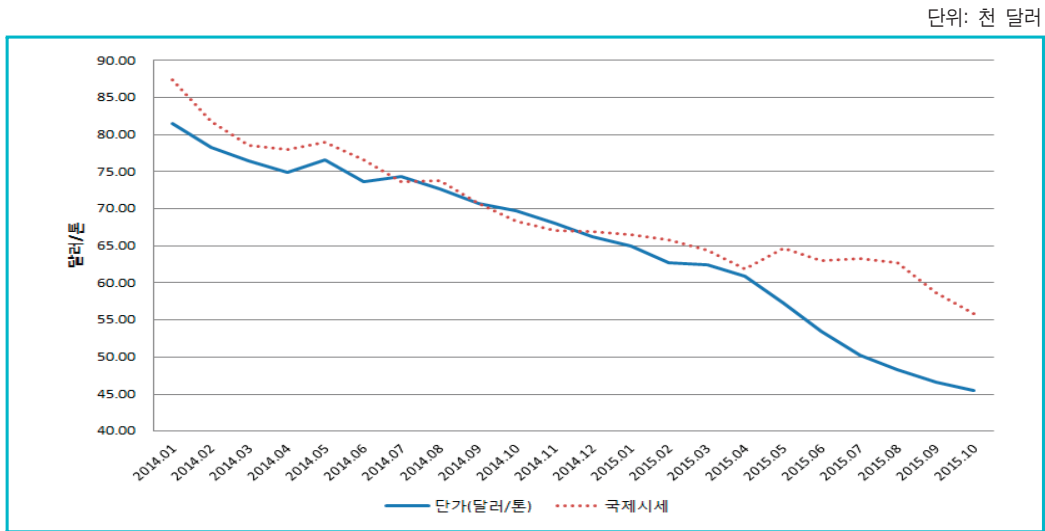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철도를 이용한 수출보다는 항로를 이용한 수출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¹²⁾ 셋째, 각 지역의 수입 현황 및 주요 수요처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산 무연탄의 수입은 주로 철강이나 요업 회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이종규 2015). 또한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 저급탄을 많이 사용하는 발전소에서는 사용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중국 무연탄 수입 시장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에 무연탄 수입(금액)이 전년에 비해 30.0% 감소했으며, 2015년에도 4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이 하락해서 총액이 줄어드는 금액 측면 뿐 아니라 물량 측면에서도 2014년 23.4%, 2015년 20.8% 감소함으로써 중국 국내시장의 수요 감소가 전체 무연탄 수입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무연탄 수출 역시도 2014년에는 2013년과 비교하여 금액과 물량이 동시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며, 2015년에는 물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은 감소했다. 즉, 작년에 비해 수출량은 늘었으나 가격 급락으로 인해 수출액 자체는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 것이다.¹³⁾ 북한당국이 국제시세보다 훨씬 더 낮은

12) 실제로 무연탄은 철도를 통한 운송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장거리의 경우 철도를 통한 수출이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북한 무연탄 수출은 2015년 10월까지 금액 기준으로 약 5.4% 감소했으나, 물량 기준으로는 작년에 비해 약 29.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에 물량 감소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는 수준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무연탄 수출국의 금액과 물량이 동시에 급감한 것으로 고려한다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분석이 자세하게 이루어져야 보다 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가격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 Index Mundi (<http://www.indexmundi.com/commodities/>)

가격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중국에 대량 판매함으로써 전체 수출액의 감소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추정해볼 수 있다.

2. 철광석(HS2601)

북한의 철광석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항상 수출품목 2위 자리를 유지해왔던 대표적인 상품이다(HS 4단위 기준). 특히 10년 동안 북한 대중 수출에서 석탄과 철광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를 차지해왔다는 사실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의 경제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2014년 중국에 철광석을 283만톤 수출했으나, 가격하락으로 인해 수출액은 2.2억달러에 그쳤다.

북한의 수출에 있어 철광석이 가지는 의미와 달리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 철광석의 위상은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면 북한 철광석은 2014년 기준으로 중국 시장에서 약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순위로는 21위를 기록하는데 그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큰 변동 없이 20위 내외를 기록해왔으며, 최근 들어

〈표 4〉 북한 석탄과 철광석의 대중수출 추이

(단위: 백만달러)

	석탄	철광석	석탄+철광석	전체 대중 수출
2005년	108 (21.7%)	67 (13.5%)	175 (35.2%)	497
2006년	97 (20.7%)	77 (16.5%)	174 (37.2%)	468
2007년	163 (28.0%)	80 (13.7%)	243 (41.8%)	582
2008년	201 (26.7%)	172 (22.8%)	373 (49.5%)	754
2009년	209 (41.7%)	48 (9.6%)	257 (51.3%)	501
2010년	390 (32.8%)	194 (16.3%)	584 (49.2%)	1,188
2011년	1,141 (46.3%)	324 (13.1%)	1465 (59.5%)	2,464
2012년	1198 (48.2%)	249 (10.0%)	1,447 (58.2%)	2,485
2013년	1380 (47.4%)	299 (10.3%)	1679 (57.7%)	2,912
2014년	1,136 (40.0%)	222 (7.8%)	1,358 (47.8%)	2,841
연 평균	35.4%	13.4%	48.7%	-

주: 1) 괄호 안은 북한의 전체 대중수출에서 해당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

2) 2009년 8~11월 간 북중무역 통계는 보정되어 있지 않음¹⁴⁾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를 바탕으로 필자 계산

서는 20위권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관찰되고 있다. 대신 중국의 철광석 수입 시장은 줄곧 호주와 브라질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 두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76.8%에 이른다(2014년 기준). 또한 2000년 이래 호주와 브라질의 비중은 70% 내외를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그 뒤를 남아공, 인도 등이 잇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 만큼 북한 무연탄과 달리 철광석은 수출량과 수출액의 변화가 해마다 크게 나타난 편이었다.

14) 이 기간의 통계를 보완하는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이석 편(2014)과 남진욱(2015)을 참고하라.

〈표 5〉 중국 지역별 북한산 철광석 수입 현황 (2014년 기준)

지 역	금액(백만달러)	물량(천톤)
길 림 성	76 (34.2%)	1,057 (37.4%)
산 동 성	52 (23.4%)	764 (27.0%)
강 소 성	40 (18.0%)	396 (14.0%)
요 녕 성	32 (14.4%)	323 (11.4%)
하 북 성	17 (7.7%)	226 (8.0%)

주: 괄호 안은 북한 철광석 수출에서 해당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를 바탕으로 필자 계산

북한의 철광석은 주로 길림성, 산동성, 강소성, 요녕성, 하북성 등 5개의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 5개 지역에 북한 철광석 수출의 약 98%가 집중되고 있으며, 주요 수요처는 지역 내의 철강업체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진석(2015, p.3~4)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철광석 수입 비중은 2014년 약 66%에 이르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철강생산과 국제 철광석 가격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2000~15년 동안 중국 철강생산과 철광석 가격의 상관관계는 0.80으로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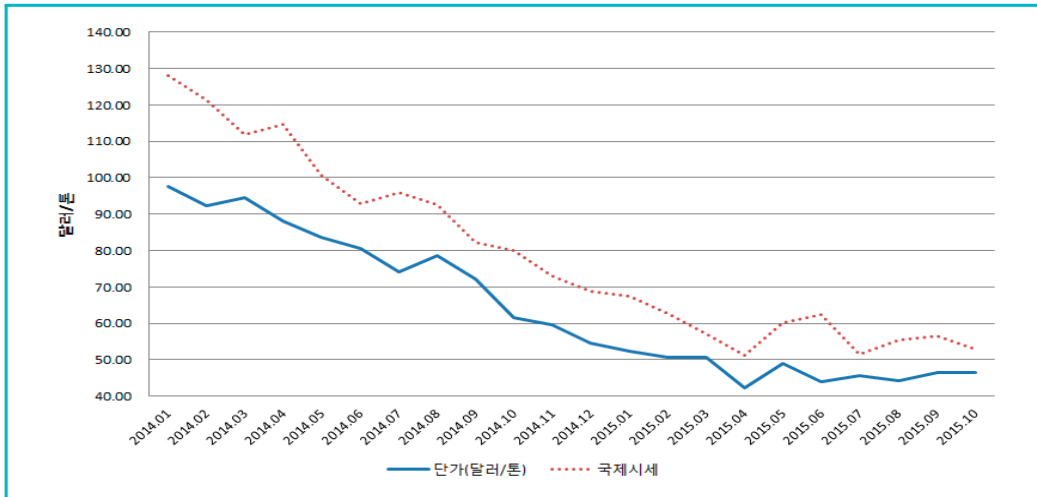
2005년부터 줄곧 북한의 수출품목 2위 자리(HS 4단위 기준)를 지켜왔던 철광석은 2015년 들어서면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철광석 수출가격의 급락으로 수출액 자체가 69% 감소하면서 수출품목 상위 5위 자리에서 처음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다. 수출단가는 2014년 1월에 97.7달러였으나, 1년이 조금 지난 2015년 10월에는 46.5달러로 반토막 이상 났던 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같은 양의 철광석을 수출하더라도 가격하락으로 인해 수출액으로 나타나는 실적은 급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이다.

문제는 향후에도 중국 내 철광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상승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야금공업기획원(China Metallurgical Industry Institute)에 따르면 중국의 철강수요가 2014년 702만톤, 2020년 689만톤, 2025년 650만톤 계속 하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구나 철광석의 경우 공급 Big

15) 중국의 내수 확대(건설, 기계·장비, 자동차)에 힘입어 국제 철광석 가격은 2000년대 초중반 이후 급격하게 상승.

〈그림 2〉

북한의 대중 철광석 수출가격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 Index Mundi (<http://www.indexmundi.com/commodities/>)

3사인 Vale, Rio Tinto, BHPB의 광산 증설과 그에 따른 가격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철광석 가격은 더욱 하락할 유인이 있다(허진석 2015). 따라서 북한도 철광석 수출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입장이며, 중국 내 철광석에 대한 자체 수요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의류제품은 워낙 다양한 종류¹⁶⁾로 구분되기 때문에 HS 4단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북한 수출에서 철광석의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모든 의류제품을 다 합칠 경우에는 철광석을 앞서는 수출품목이 된다. 사실 HS61은 편물제 의류이고 HS62는 편물제 이외의 의류인데, 이들은 모두 의류제품으로 분류해도 된다. 이 경우 2014년 철광석의 대중수출은 2.2억달러였던 데 반해 의류제품(HS 61과 62)의 수출은 7.4억 달러에 이르게 된다.¹⁷⁾

16) HS 4단위 기준으로는 남성/여성용 코트, 남성/여성용 재킷, 남성/여성용 셔츠 등을 모두 다르게 구분

17) 이를 나누어서 살펴보면 편물제 의류(HS61) 수출은 약 1.2억달러였고, 편물제이외 의류(HS62) 수출은 약 6.2억달러였다.

3. 의류제품(HS 61과 62)

북한의 대중 의류제품 수출은 2010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이때부터는 중국 수입시장 내에서 이탈리아의 뒤를 잇고 있다. 최근 두 국가가 중국의 의류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 정도 된다. 물론 이탈리아 의류 제품과 북한 의류 제품은 수요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경쟁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이 외 베트남, 한국, 일본, 방글라데시 등이 중국에 의류제품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로 꼽힌다.

다음은 중국 내 지역별 의류제품의 수입 수요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주로 상해, 북경 등의 대도시로 들어가지만, 북한의 경우 주로 요녕성과 길림성 위주로 수출이 되고 있다. 특히 요녕성으로의 수출이 88.4%에 이를 정도로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임가공형태의 교역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¹⁸⁾

〈표 6〉 중국 의류제품의 수입시장 구조

(단위: 백만달러)

	북한	이탈리아	전체 중국 수입
2010년	187 (8.4%)	387 (17.3%)	2,233
2011년	415 (11.6%)	632 (17.7%)	3,571
2012년	440 (11.0%)	745 (18.6%)	4,009
2013년	587 (13.1%)	838 (18.7%)	4,485
2014년	741 (13.2%)	927 (16.5%)	5,626

주: 괄호 안은 중국 전체의 의류 수입에서 해당국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를 바탕으로 필자 계산

18) 이종운·홍이경(2013, p.66~67)에 따르면 “접경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중국 위탁가공업자들은 북한에 원부자재와 함께 관련 설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북한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의류 및 봉제 부문에서 임가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표 7〉 중국의 지역별 의류제품 수입 현황 (2014년 기준)

(단위: 백만달러)

지 역	북한	지 역	이탈리아
요 녕 성	655 (88.4%)	상 해 시	624 (67.3%)
길 림 성	75 (10.1%)	광 동 성	94 (10.1%)
산 동 성	9 (1.2%)	북 경 시	81 (8.7%)

주: 괄호 안은 해당국의 의류제품 수출에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를 바탕으로 필자 계산

향후 중국의 의류 수입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통한 북한의 외화 수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석진(2015, p.21)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대 의류 수출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급속한 임금 상승과 위안화 절상으로 의류를 비롯한 노동집약형 공산품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기 시작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2014년 중국의 전체 의류 수입은 전년에 비해 25.4% 증가했으며, 북한의 의류제품 수출도 26.2%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우 의류제품을 통한 외화가득률은 무연탄이나 철광석에 비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임가공 방식의 수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¹⁹⁾

IV

맺음말

본고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북한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무연탄, 철광석, 의류제품 등 3대 품목을 중심으로 최근의 변화 추이, 중국 내 수요,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²⁰⁾ 이들은 북한의 대중수출에서 약 73%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은

19) 김석진(2015, p.19)은 2014년 북한의 섬유 원부자재 수입액과 의류제품의 수출액 간의 차이는 약 2억 달러였는데, 설비투자비, 제품운송비 등을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 획득한 외화는 이보다 더 적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20) HS코드 기준으로는 HS2701(석탄), HS2601(철광석), HS61과 62(의류제품)에 해당된다.

북한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의 변화는 곧 중요한 외화확보 채널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2014년 기준).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북중무역의 변화도 이 3대 품목의 부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북중무역은 확실한 감소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14년에는 북한 원유수입 여부 문제로 통계상의 논란이 존재했으나, 2015년에는 이러한 논란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북중무역이 확실하게 감소했다고 봐도 무방하다.²¹⁾ 특히 수출에는 논란이 존재하지 않는데, 2014년 2.4% 감소한 데 이어 2015년(10월 누적액)에는 12.6%나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둘째, 이러한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하자원의 수출 부진이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석탄은 2014년 17.7% 감소했고, 2015년에는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철광석 수출은 더욱 부진했는데, 2014년 25.7%, 2015년 69.0% 줄어들었다. 셋째, 이러한 지하자원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은 가격 하락이며, 문제는 향후에도 이와 같은 경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넷째, 최근 들어 지하자원의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의류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5년 들어서는 이마저도 둔화되었다. 의류제품 수출은 2014년 26.2% 늘어나 전체 7.4억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추세는 2015년(10월 누적)에 들어서면서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4년에 비해 약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더구나 의류제품 수출은 임가공 방식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외화가득률은 지하자원과 비교하여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향후 북한의 대중 수출 추이를 예상한다면 더 이상 확대될 여력이 거의 없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주력 수출품목인 지하자원의 국제시세가 당분간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의류제품의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는 데다 이를 늘린다고 하여도 외화가득률은 지하자원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3대 수출품목 외에 다른 대안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재 이들 외의 주력 수출품목으로 수산물, 철강 등이 존재하나, 워낙 수출양도 적고 이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중국 이외의 다른 수출 상대국을 찾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예를 들면, 러시아는 한국을 제외한 북한의 2번째 교역 상대국인데, 총 교역규모가 1억달러 내외를 기록

21) 북한의 대중 원유수입에 대한 통계는 2014년과 2015년에 모두 잡히지 않았다. 따라서 2014년과 2015년 사이의 북중무역 변화는 원유수입이 통계 반영 여부에 상관없이 확인할 수 있다.

하고 있다.²²⁾ 물론 양국이 2020년까지 교역규모를 10억달러까지 확대시키기로 했으나, 현재 북중무역 규모가 60억달러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것도 매우 적은 수치이다. 따라서 무역을 통한 외화확보에는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향후 수출 감소세가 북한 외화벌이의 급감으로 바로 연결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해 왔으며, 이를 경상수지이전, 서비스수지흑자, 자본수지흑자 등을 통해 충분히 상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²³⁾ 이번에도 노동자 해외 송출 확대, 관광 활성화, 시장 및 비공식부문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²⁴⁾

종합하면 북한의 대중수출 감소세는 경제위기로 이어진다고 이해하기보다는 북한 당국의 무역구조 변화에 대한 유인이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과거 북한은 무역환경이 변화하는 시점마다 무역구조를 바꾸어가며 대응해온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북한은 대외무역구조의 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외화확보 채널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북한이 표방하는 무역다각화도 이러한 시도의 일환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북한당국에 이러한 유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북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22) 양국의 교역 규모는 2013년 약 1억 1,270만달러, 2014년 9,040만달러를 기록

23) 장형수(2013)에 따르면 북한은 1997년 이후 상당한 외화를 국내외에 축적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991~2012년 무역수지 적자 누적액은 179억달러였던 데 반해 무역수지 이외 외화수입의 누적액은 192억달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24) 김석진(2015, p.48~49)은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외화벌이보다 시장과 사경제의 발전이 더 중요한데, 김정은 정권은 시장과 사경제를 용인하며 활용하는 정책을 계속 펴고 있다.”고 분석한다.

〈참고문헌〉

- 강경희. 「외화수지 불균형과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 『경제연구』, 2012년 제3호, pp.55~56.
- 고일동·이석·김상기·이재호. 『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KDI 연구보고서, 2008-05, 한국개발연구원, 2008.
- 김병연. 「북한 경제 성장의 결정 요인」, 『POSRI 경영경제연구』, 제11권 제1호, 2011, pp.63~81.
- 김석진. 「북중경협 확대 요인과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1월호, pp.93~119.
- _____.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KINU 통일나침반』, 통일연구원, 2015.
- 김향숙. 「외화수지 관리의 본질」, 『경제연구』, 2010년 제4호, pp.40~41.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중국 동부 5성의 북한 광산물 무역 분석』, 『북한자원 보고서』 14-3호, 2014.
- 배상인·안성희. 「중국의 석탄수입 급증 배경과 시사점」, 『국제경제정보』, 한국은행, 제2012-22호.
- 배종렬.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수요 급증과 나진항 진출」, 『수은북한경제』, 2011년 겨울호, pp.39~68.
- 이상만·황진환. 「북한 경제 성장의 결정 요인 분석: 북한과 중국의 성장함수식 비교」, 『통일문제연구』, 제51호, 2009, pp.137~161.
- 이석. 「북한경제, 정말 좋아지고 있는가?」, 『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8월호, pp.3~21.
- 이석·이재호. 「5.24 조치 이후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의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5월호, pp.93~119.
- 이석 편. 『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무역통계와 서베이 데이터의 분석』, 연구보고서 2013-05, 한국개발연구원, 2013.
- 이종규. 「북한 대외무역통계 종류와 특징」, 『2014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통계청, 2014.
- _____.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 감소: 원인과 의미」, 『KDI Focus(통권 제57호)』, 2015년 6월 5일.
- 이종운·홍이경. 『북중 접경지역 경제교류 실태와 거래관행 분석』, 연구자료 13-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 장형수.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과 분석: 1991~2012년」,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통일연구원, 2013.
- 정형곤·방호경.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효과 분석』, 동북아연구시리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 조동호. 「북중관계의 변화와 남북경협」, 『통일경제』, 제2권, 현대경제연구원, 2011.
- 최영옥. 「실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외무역전략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2013년 제4호, pp.34~36.
- 허진석. 「중국 쇼크로 철강원료 저가격 시대 초장기화 가능성」, 『POSRI 보고서』, 포스코경영연구원, 2015년 7월 29일.
- 한국무역협회. 『중국 철강산업의 현황 및 전망』, 2014.
- 한국신용평가. 『철강산업 7대 이슈 점검』, 2014.
- Greitens, Sheena. C.. Illicit: North Korea's Evolving Operations to Earn Hard Currency, Washington D.C.: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
- LEE, Jong Kyu. "What Determines DPRK's Anthracite Exports to China?: Implications for the

- DPRK's Economy.”.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7(2), 2015.
- Nanto, K, Dick and Mark E. Manyin. “China–North Korea Relati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for Congress, 7–5700, R41043, 2010.
- The Economist. “Winners and Losers in the Great Chinese Rebalancing”, July 26th 2014.
- Tilton, John. E. World Metal Demand: Trends and Prospects, Washington DC: Resources for the Future, 1990.
- Tu, Kevin J. and S. Johnson–Resier. “Understanding China's Rising Coal Imports”, Canergie Policy Outlook, Feb 16, 2012.

CEIC Statistical DB

Global Insight Statistical DB

United Nations Commodity Trade Statistical DB

중국 세관 통계 데이터베이스

중국 통계국 통계 데이터베이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도.

한국무역협회(KITA), 통계데이터베이스